

KEB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섹션

2022. 9. 26

서 정훈 연구위원

seojh@hanafn.com

02.729.0195

주간 달러/원 동향(9/19~9/23) 및 전망

◀서플라이-USDSP-체결> 2022/09/19 종:1,386.20 ▼1.80 -0.13% 시:1,385.00 고:1,386.70 저:1,381.00

- 9.19일 1,393.6(+5.6): 역외 달러 강세에 상승. 미국 기대 인플레이 지표 하락에 따른 달러 약세에 환율은 1385원에 하락 출발. 이후 역외 달러 상승과 결제 수요 집중에 오전 중 1390원대 초반까지 꾸준히 상승함.
- 9.20일 1,389.5(-4.1): FOMC 앞둔 관망 흐름과 당국 스무딩 속 하락. 간밤 강달러 숨고르기 속 1390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증시 상승에 1387.1원까지 하락함. 이후 당국 스무딩 추정 물량에 1390원대 진입 실패 후 뚜렷한 방향성 배팅 상실한 가운데 1380원대 후반에서 좁은 등락 이어감.
- 9.21일 1,394.2(+4.7): FOMC 앞두고 강달러 재개하자 상승. 장초반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소식에 1387.6원까지 하락함. 이후 증시가 낙폭 확대하고 달러-위안이 오름폭 확대하자 환율도 1390원대 진입 후 1396.6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당국 개입 경계에 소폭 하락
- 9.22일 1,409.7(+15.5): 달러 매수세에 상승. 러시아 군 동원령 발표와 FOMC 점도표 상황에 따른 강달러에 1398원에서 상승 출발. 이후 통심리 확대에 1400원대 후반까지 고점을 높여 1410원을 앞두고 상단 막힌 채 등락 이어감. 장 후반 매수세 재개 속 1413.4원까지 고점 높였으나 장마감 직전 당국 개입 추정 물량에 소폭 하락.
- 9.23일 1,409.3(-0.4): 강달러 둔화와 당국 경계에 약보합. 재무성 개입에 엔화가 강세 보이자 달러-원은 1405원에 하락 출발. 장 초반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 유입에 빠르게 1400원대 후반까지 고점 높임. 이후 통심리에 1411.2원까지 고점 높였으나 당국 경계 속 1410원 아래로 상승폭 반납함.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역외 달러 상승과 결제 수요 집중에 1390원대 진입. 다만 FOMC 앞둔 관망세 속 강달러 쉬어가기와 당국 스무딩 물량에 1380원대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함
- 주 중반, 환율은 달러 금등세 속 상승. FOMC 직전 달러 매수세 재개에 환율은 1390원대로 진입하며 상승. 9월 FOMC 결과 발표 후, 점도표 상황에 따른 긴축 전망 강화와 러시아 군 동원령 발표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에 달러가 급등하며 환율은 1400원대에 안착함.
- 주 후반, 달러-원은 강달러 쉬어가기와 엔화 강세에 약보합. 일본 재무성 개입에 엔화가 급등하고, 당국이 매도 개입하자 1410원대 안착 실패 후 소폭 하락.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9월 FOMC 이후 긴축 전망 상향,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이탈리아의 반EU 친러 성향의 극우 정당 집권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 확대에 추가 급등 전망. 유로존 경기전망 악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 재개, 영국 새 총리 에너지 법안으로 재정적자 우려에 따른 파운드 급락세 등 주요 통화 약세 또한 금주 달러 상승 부추길 것으로 보임.
- 금주 많은 연준 인사 증언 예정에 있으나 연준 매파적 입장 인지하고 있는 만큼 매파적 발언에 따른 추가적 영향은 제한적일 듯. 한편 지난 주말 국민연금-한은 통화 스왑,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 한도 확대, 가스공사 달러 차입 등 수급 개선책을 발표하였는데, 결제 우위 수급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85.00	1,413.40	1,381.00	1,409.30	+21.30

예상거래범위

1,419원 ~ 1,445원

엔·유로화 동향 [9/19~9/23]



유로화 동향

- 주초, 9월 FOMC에 대한 100bp 인상 가능성이 다소 약화된 영향 속에 뉴욕증시가 후반 반등에 성공하며 위험선호를 보이며 등가 수준 회복 출발. 이어 달러인덱스가 110선을 회복하는 가운데 ECB의 긴축적 통화정책 행보 강화에도 연준에 뒤쳐질 것이라 기대 등으로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FOMC에서 75bp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점도표 상향 등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와 러시아의 동원령 등의 영향으로 '패리티' 환율 아래에서 고착화되는 약세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역대 최대치 하락 등 경기 불확실성 요인 재부각하며 약세 흐름 지속 후, 주 후반, 영국 대규모 재정 정책 우려 등에 따른 파운드 약세가 추가적 달러 강세 견인하는 가운데 유로존 서비스 업황 부진으로 유로화는 0.966달러대 까지 20년래 최저치 행보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015	1.0023	0.9667	0.9690	-0.0324



엔화 동향

- 주초, 연준의 9월 통화정책 기조 100bp 인상 가능성 후퇴에도 차별화된 통화정책 기조 반영이 이어지며 약세 출발. 이어 일본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BOJ 초완화 정책 지속 전망 등이 우세를 보이면서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초매파 성향을 보인 FOMC 결과에도 이후 예정된 BOJ 금정위에서 기존 완화정책을 고수할 것이라 기대 등이 반영되며 장중 145엔을 상향
- 후반 들어, BOJ는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를 0%에서 유지토록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시장에 강도높은 개입을 단행하면서 엔화는 큰 폭으로 강세 전환 했지만, 주 후반, 시장 개입 효과가 하루 만에 소멸하며 재차 약세 흐름으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9	145.9	140.4	143.3	+0.40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19~9/23)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확대에도 FOMC에 대한 높은 경계감 등이 금리 하단 제한하는 가운데 혼조세 출발. 이어 9월 FOMC의 매파적 결과를 예상하며 시장에 반영되는 가운데 유로존내 독일의 높은 생산자 물가가 40% 급등한 이슈 등도 반영되며 큰 폭 상승으로 전환
- 중반 들어, 이전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성 성향이 FOMC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을 시장 참가자들이 반영하면서 국고채 금리 '11.8월 이후 고점 경신
- 후반 들어, 9월 FOMC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 향후 점도표와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와 한은의 기조 변경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작용하며 4% 상향 돌파한 가운데 단기금리의 급등에 따라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현상 발생. 이후, 주 후반에도 FOMC 여파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연쇄적 금리인상과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 등을 반영하며 상승 흐름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연준의 강도 높은 추가 긴축 우려 속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관련 소식에 따른 미-중 갈등 이슈 재부각 등으로 크게 하락 출발. 이어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 속에서도 기술적 되돌림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연준 경계감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9월 무역수지 적자 이슈 등에 따른 영향 반영되며 재차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9월 FOMC에서 75bp 인상에 따른 시장 선반영에도 연준 의장의 회견 내용과 점도표 변화가 상당히 매파 성향을 보이면서 크게 하락 추세 이어진 양상. 이어 주 후반, 연준 외 주요 글로벌 중앙 은행들의 긴축 행보도 이어진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 시킨 가운데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등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고조도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치며 마감